

새빛누리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안과레지던트
수련병원

새 빛 안 과 병 원

소 식 지

새 빛 누 리

2 0 2 0 여 름 호



새빛안과병원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 선정



우리 병원이 대표적인 의료 전문지인 보건신문이 주최·주관하는 ‘2020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 의료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는 의료를 비롯하여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개원 26주년을 맞은 우리 병원은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안과전문병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보건복지부 지정뿐만 아니라 안과전문병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 인증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도와 각종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안질환 치료가 가능합니다. 연간 외래 환자의 수는 무려 18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훨씬 많은 안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PRK)과 공막확장술(SRP)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시력교정술과 노안교정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병원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시 수술도 가능한 기기를 들여오는 등 첨단 장비 도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오직 안과만을 위한 단독 건물을 세웠고, 2012년에는 병원 건물을 9층으로 증축하고, 모든 층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습

니다. 그 결과 지상 9층, 지하 1층, 연면적 4250㎡에 이르는 규모에 진료실 17개, 검사실 26개, 수술실 7개, 50병상 규모의 매머드급 안과전문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상 1층 연면적 1550㎡ 규모의 수술실 및 병동의 별관 이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수술 및 입원 환자의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 대학병원 교수 출신을 중심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숙련도를 갖춘 전문의가 각 특화전문센터에 포진해 있습니다. △백내장·노안센터 △망막센터 △녹내장센터 △성형안과센터 △라식센터 △소아안과·사시센터까지 6개 특화전문센터와 △렌즈클리닉 △안구건조증클리닉 등 2개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진료영역을 세분화했습니다.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박수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에 선정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안과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과 환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선도하는 전문병원으로서 난치성 중증 안질환 정복을 위한 연구는 물론 각종 사회공헌 활동 확대, 우수 전문의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노안 백내장 수술

노안(老眼)은 눈의 노화 현상으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 수정체도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안이 생기면 가까운 곳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거리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안경 착용이 필요합니다.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데 반해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이 오면,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내장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노안은 그간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정체를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노안의 모든 증상을 완벽하게 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원거리와 근거리 중 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선택했다면, 수술 후에도 초점이 맺힌 곳만 잘 보여서 근거리를 볼 때에



백내장 수술 전



백내장 수술 후



백내장+노안수술 후

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안과 백내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은 다중 초점을 통해 안경,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근거리부터 중간거리, 원거리까지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기존 백내장 수술은 집도의가 직접 수술용 칼을 가지고 각막과 수정체낭을 절개한 후,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분쇄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반해 노안 백내장 수술은 모든 수술 과정이 레이저로 진행됩니다. 우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수술 장비 ‘렌즈스(LenSx)’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의 미세한 레이저로 수술을 시행,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렌즈스와 연동되는 ‘베리온(Verion)’은 수술 중 안구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 정확한 절개 위치나 크기, 깊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최첨단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한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어 만족도 높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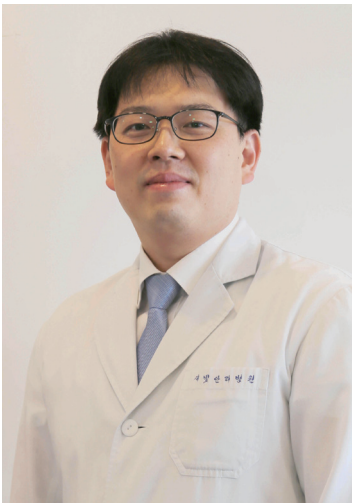
노안 백내장 수술은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 번짐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정밀 검사는 물론,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수술의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수술을 받는 환자의 눈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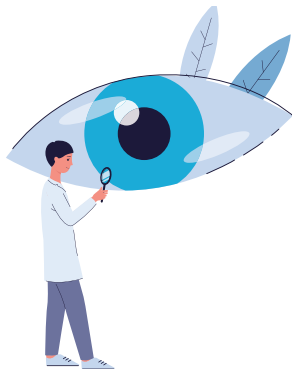
최진석 진료부장

“병원과 함께 성장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망막센터 장성민 진료과장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남대학교병원 수련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공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망막 임상강사



우리 눈의 망막은 각종 신경조직과 세포, 혈관 등이 작은 공간에 밀집해 있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 그만큼 망막 분야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고, 수술 및 시술 난이도가 높은 탓에 해당 분야의 의료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4명의 망막 분야 의료진이 진료와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장성민(이하 장), 김다영(이하 김) 진료과장은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는 노랫가사처럼 춘삼월 봄바람과 함께 우리 병원 망막센터에 부임했다.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난 그들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의사가 된 이유, 특히 안과 의사가 된 이유는?

장· 저는 목회자이신 아버지 밑에서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다복한 형제 관계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던 부모님은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듯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을 잃으면 건강의 9할을 잃는다는 말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눈을 연구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

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섬세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세극등 현미경을 보면서 바로 진단을 내리고 환자의 불편함을 드라마틱하게 호전시키는 점이 무엇보다도 흥미로워서 안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려서부터 제가 배우고, 공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학 분야 중에서도 안과는 다른 과에서 대체 진료가 불가능하고, 직접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Q. 새빛안과병원에 오게 된 이유는?

장· 의사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연구활동도 병행할 수 있는 새빛안과 병원은 최적의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훌륭한 의료진 밑에서 의술을 익히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새빛안과병원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망막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기석 부원장님을 비롯해 공막확장술(SRP)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신 박규홍 이사장님, 소아사시 명의 박수철 병원장님, 국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실명예방에 앞장서고 계신 정성근 원장님 등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Q. 안과 의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환자는?

장· 2008년 공중보건으로 섬에서 근무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밤 중에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7살 남자아이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건소에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진료 결과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어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함께 이송 후 무사히 응급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섬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섬에 의사는 저 혼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긴급한 상황을 맞이했던 당시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김· 양안 시력저하로 내원하신 젊은 환자분이 심한 고혈압 망막병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혈압을 쟀더니 220/100 정도로 측정돼서 바로 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과 선생님께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이나 본인만의 해소법은?

장·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틈틈이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지요.

장· 좋은 실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환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은 첫 번째로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더불어 환자를 존중하고,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좋아하는 문구나 좌우명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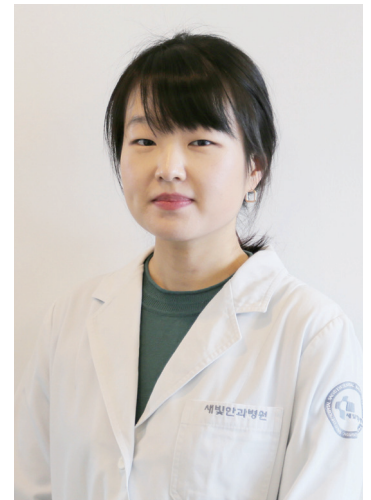
장· “성실함, 진실함, 열정을 바탕으로 균형감각을 갖추는 자가 되자”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노력파로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김·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이루어진다”의 학 관련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새빛안과병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장· 눈은 우리 신체에서 작은 기관이지만 현대 의학으로도 다 알지 못할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눈질환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새빛안과병원에서 열심히 성장해서 환자와 병원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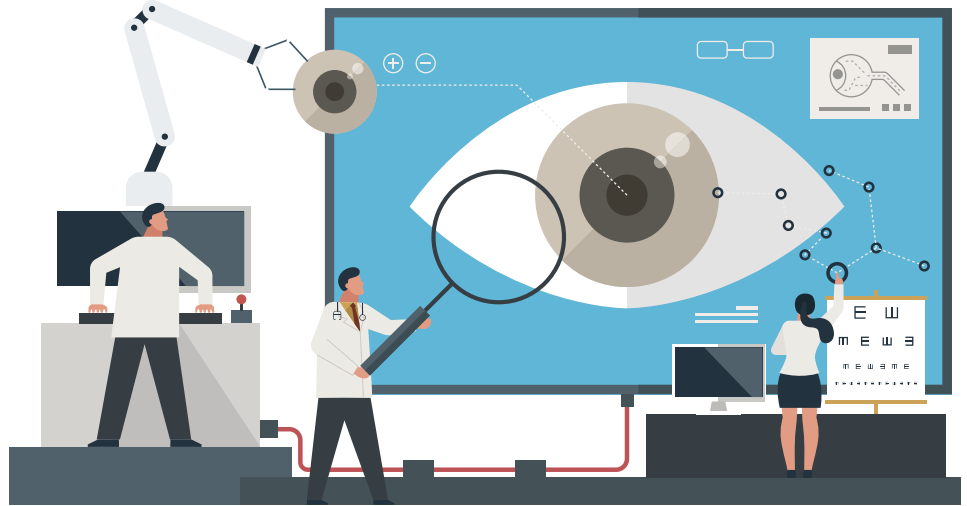


망막센터 김다영 진료과장

-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의
- 가톨릭중앙의료원 안과 전공의



백내장 수술 계절요인과 무관, 적기치료 중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누렇게 변색돼 보이거나 눈부심, 빛 번짐 현상 등도 나타난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백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근심이 깊어진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지만, 여름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꺼리면서 불편을 안고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내장은 수술을 받아야만 근본적인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계절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발병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데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정체가 경화돼 일반적인 수술로 제거하기 어렵다. 수술하지 않고 참다가 안압까지 높아지면 녹내장이 생길 위험성도 있다.

눈이 침침하게 느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증세를 단순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도 여름철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꺼리는 노인층과 중장년층이 적지 않다.

여름철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루는 이유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수술 전후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자외선이 회복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백내장 수술은 계절과는 무관한 수술이다.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막을 10mm 정도 절개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활용해 2~3mm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과 염증 발생 우려가 적고, 회복기간도 짧다.

또한 수술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 약제 발달로 감염이나 염증 우려는 거의 없다. 계절요인보다는 수술 전후 환자의 주의사항 준수와 지속적인 안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박세영 진료과장





목표관리 우수 부서 및 장기근속자 포상

지난 4월 6일, 2019년 목표관리 우수 부서 및 2020년 10년 장기근속자 포상을 위한 시상식을 본원 9층 새빛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년보다 조금 늦게 열린 이번 시상식은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목표관리 최우수상에는 외래간호팀, 우수상에는 Q팀과 원무팀이, 10년 장기근속 포상

자에는 수술파트 최영임 간호사가 선정돼 상장과 함께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우리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후문 출입구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통해 본원 임직원들은 물론,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온 측정을 거친 후에만 건물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나타나면, 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또 다시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진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디어 속 새빛안과병원

방송

쿠기건강 TV(최진석 진료부장 출연)

- 데일리 건강_노안 2020.05.07
- 데일리 건강_결막염 2020.05.21



신문

고양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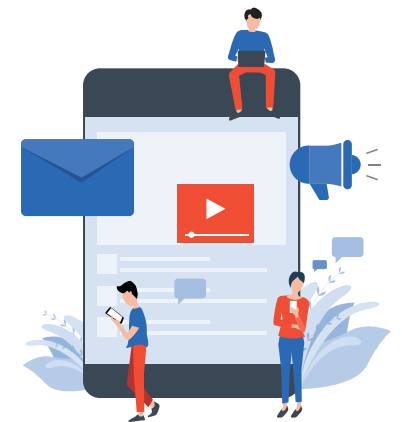
- 지역전문 병원도 코로나 19 감염 차단에 나서 2020.03.02

보건뉴스

- 경기도 대표 안과전문병원으로 '우뚛' 2020.04.03

헬스조선

- 롤러코스터 반복해 탔다가, 안구 내 출혈이? 2020.05.25



6개 특화전문센터간 빠른 협진

안과 전 분야 당일 원스톱*토탈케어

01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02



실력파 의료진의 안과 질환 완벽 케어

명문 대학병원 교수출신 중심
20명 이상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03



믿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병원입니다.

04



최정상 수준의 첨단 의료장비

20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O N E S T O P - T O T A L C A R E



의료 법인 세경의료재단

2020년 여름호(통권10호)

발행인·박수철

편집인·최승환

발행·마케팅팀

디자인·(주)꽃을담다(02.325.9640)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5(백석동) 새빛안과병원

Tel·031.900.7700

Fax·031.900.7777

새빛안과병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QR코드로 간편하게 ‘친추’하세요”



진료예약 및 상담

예약

대표번호 031-900-7700

라식센터 1544-7050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진일 일요일 / 공휴일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오시는 길

